



제62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2일)

그림으로 신년 해돋이를

이재호 | 202호 서화실Ⅱ | 18:00~18:30

洛山 東畔으로 義相臺에 올라 안자,
日出을 보리라 밤둥만 니러흐니,
祥雲이 집피는 동, 六龍이 바퇴는 동,
바다히 썬날 제는 萬國이 일위더니,
天中의 티쓰니 毫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낙산 동쪽기슭 의상대에 올라 앉아
일출을 보리라 밤중에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 피어나는 듯 육룡이 받치는 듯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을 뒤흔들더니
하늘 가운데 치뜨니 터럭을 셀만하구나.
행여나 지나는 구름 근처에 머물면 어찌나.

정철鄭澈(1536~1593), 「관동별곡關東別曲」 중

새해를 맞이하는 한국의 전통 풍습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선달 그림밤을 촛불을 켜놓고 새우는 수세守歲는 일 년 동안 집안사람들의 행실을 지켜보던 조왕신이 선달 스물 나흘 날 승천해 옥황상제에게 보고하고 그림날에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한 해의 행실을 되돌아보며 경건하게 자숙하는 의식인 것이지요. 그림날은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는 동요로 잘 알려진 대로 까치설이라고도 했습니다. 한 해를 잘 보냈음을 감사하며 웃어른께 묵은세배를 올리고 성묘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차례茶禮를 올리는 의례는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지요.

바닷가나 산 위에서 떠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는 풍습은 근대의 새로운 풍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수세와 묵은세배, 차례와 같은 풍습은 조상의 덕을 기리고 친족 사이에 올바른 가풍을 이어가려는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새해 첫 날 일출을 바라보는 일은 다분히 개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거리는 해와 마주하며 스스로 진보하는 한 해를 다짐하는 근대적인 인간상이 오늘날 해돋이에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듯 붉은 아침 해를 바라보는 감격은 옛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학과 상서로운 상징>, 정홍래가 그린 것으로 전하는 <해 뜨는 바닷가의 매>와 같은 세화歲畫에는 순수한 양陽 그 자체인 붉고 둥근 해가 그려져 묵은 재액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설날 해는 아닐지라도, 동해안 일출의 장관을 노래한 정철의 「관동별곡」 속 문장은 신년 해돋이에 나선 우리의 마음과 통하고 있습니다.



제62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2일)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김혜원 |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 18:00~18:30

카자흐스탄의 서투르키스탄 지역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전시는 카자흐스탄 문화를 고대부터 근대까지 통사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유라시아대륙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카자흐스탄 지역과 한반도가 지니는 공통점과 교류의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에필로그에 전시되어 있는 경주 계림로 보검寶劍은 고대 카자흐스탄 지역과 한반도의 교류를 암시하는 중요한 자료로입니다. 황남동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에서 발견된 보검은 동시기 신라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수입품으로 여겨지는데, 가장 유사한 형태를 카자흐스탄 보로보예(Borovoe)에서 출토된 칼 장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부 ‘대초원 문명, 황금으로 빛나다’ 는 이번 특별전의 하이라이트인 ‘황금인간’ 과 이와 유사한 시기, 출토 맥락을 지닌 황금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온 몸에 황금 장식을 뽐냈던 채운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황금인간’ 이라고 불리는 작품은 카자흐스탄의 국가적 상징으로 인식되며 현재 8개의 사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된 ‘황금인간’ 은 이식(Issyk) 쿠르간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장 먼저 발견된 사례입니다. 황금인간 이외에도 탈디Taldy, 탁사이Taksai, 사이람Sayram 유적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금제 장신구가 함께 전시되어 고대에 이미 높은 수준에 다다른 공예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제2부 ‘초원, 열린 공간’ 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고대와 중세에 해당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키토-시베리아(Scytho-Siberia) 양식의 동물문양으로 장식된 마구馬具, 제단, 술과 더불어 이슬람 문화재가 고대 유목민의 문화와 더불어 정착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다양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제3부 ‘유목하는 인간, 노마드’ 에서는 초원에서 삶을 조명합니다. 초원에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유르트(Yurt)와 여기에서 사용한 가구, 식물, 악기, 장식품 등과 더불어 유목 전통을 계승한 마구, 장신구는 이국적인 카자흐스탄의 유목문화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통해 현재의 우리와 카자흐스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 시대를 꿈꾼 사람들

강민경 | 116호 고려II실 | 19:00~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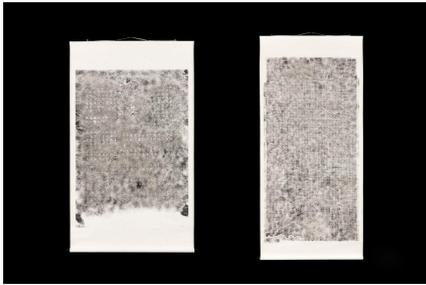


그림1.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탁본, 일제강점기, 본관440

100년간 이어진 무신정권이 몰락한 뒤, 고려는 몽골, 곧 원나라의 영향 아래 놓입니다. 이 시기 고려 지배층을 권문세족權門世族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세계제국의 일원으로써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고려에 몽골의 풍속이 유행하고, 몽골에 고려의 풍습이 퍼지기도 합니다. 원의 과거에 합격해 원나라 관직을 지내는 고려인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의 횡포로 인해 고려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탈로 인한 경제적·군사적 손실도 컸고, 많은 여성들이 공녀貢女로 원에 끌려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고위층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고려 중앙에서는 여러 차례의 정치 개혁을 진행합니다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원이 제위 계승 문제와 지방 반란 등으로 흔들리게 된 공민왕恭愍王대가 되어서야 개혁의 바람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원을 통해서 들어온 성리학性理學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종래의 권문세족도 여전히 버티고 있었지요. 고려 말의 정국을 보여주는 전시품이 여기 있는 <태고사 원증국사탑비>의 탁본입니다. 고려 말의 고승 원증국사圓證國師 보우普愚를 기리는 비석인데, 그 뒷면에 새겨진 보우의 후원자들을 살펴보지요.

그 이후 고려의 운명,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유물이 여기 보이는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입니다. 청자가 아니라 백자 그릇을 썼는데, 새 시대를 만들려면 새 그릇에 소망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 백자 그릇에는 이성계와 그의 추종자 만여명이 같이 서원誓願을 내어 미륵의 세상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태봉泰封을 세웠던 궁예弓裔가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일컬으며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성계도 고려를 바꾸고 새 세상을 이룩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림2.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강원도 회양 출토, 고려 1391년, 본관13073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5)

채해정 | 기획전시실 | 19:00~19:30

고려인의 뛰어난 기술력은 도자기뿐만 아니라 금속공예에서도 발견됩니다. 금속기의 중요한 장식 기법 중 하나인 타출打出 기법은 당대唐代에 사산조 이란의 은기 제작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한 후 송宋, 요遼, 원元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요는 10세기 경 한족漢族 장인들을 통해 당의 공예 기술을 받아들였고, 고려는 11세기 경 거란契丹 장인들을 통해 요의 공예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당, 요, 고려로 이어지는 기술의 영향 관계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출 기법은 금속판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정을 두드려 부조처럼 무늬가 튀어나오도록 표현하는 장식 기법입니다. 고려 금속공예품 중에는 은으로 표주박모양 병이나 장도집을 만든 후 무늬를 매우 도드라지게 표현하여 장식성을 드러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이나 장도집은 표면에 금도금까지 하여 고려 금속공예품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동안 팔찌와 모양은 비슷하나 손에 끼우기에는 작은 장식품들을 고리라고 불렀습니다. 공예품이 가진 기본 특성은 용도인데 그 용도를 짐작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표면 전체를 타출 기법으로 빈틈없이 장식해 디자인적으로 유사성을 보인 고리를 표주박모양 병의 받침으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병의 바닥이 둥글어 혼자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올려놓을 받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무늬가 서로 달라 한 벌로 볼 수는 없지만, 혼치 않은 타출 기법의 공예품이라는 디자인을 고려해, 그동안 용도를 몰랐던 고리에 받침이라는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고려 장인이 창안한 뛰어난 디자인 덕분에 용도를 재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1. 은제 금도금 표주박모양 병,
고려 12세기, 높이 11.1cm, 덕수3770



그림2. 은제 금도금 표주박모양 병과
고리(덕수24)